

목포시 전통시장 특성화 속도 낸다

2022년부터 매년 중기부 공모 선정
문화관광형·디지털 육성사업 추진
올해도 국비 3억 6500만원 확보

목포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2026년 전통시장 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65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전통시장 특성과 사업에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특성화 공모사업은 ▲문화관광형 시장 ▲디지털 육성사업 ▲첫걸음 시장 육성사업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핵심 정책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22년에는 목포 자유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선정돼 2년간 ‘남진야시장’을 운영해 주목을 받았다. 이 기간 6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야시장을 찾으며 목포 전통시장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어 2023년에는 청호시장이 ‘전통시장 디지털 육성사업’에 선정돼 2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유통 환경을 개선했다. 온라인 장터 ‘놀장’에 입점한 상인들은 평균 35% 이상의 매출 증가 효과를 거두며 온라인 거래 정착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에는 동부시장이 ‘첫걸음시장 조성사업’에 선정돼 결제 편의성 제고, 원산지 표시 강화, 친절·정결 서비스 개선 등 3대 서비스 혁신과 함께 안전 강화, 상인회 역량 강화 등 2대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 편리



지난 2022년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에 선정된 자유시장의 막걸리 파티 모습.

하고 쾌적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올해는 동부시장이 2027년까지 2년간 국고보조 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그동안의 기반 조성 성과를 바탕으로 관광 플랫폼과 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지역 특화 명소로 조성해 시장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특성화 패키지 사업을 통해 자유시장, 청호시장, 동부시장, 신중양시장이 ‘시장·배송 매너지 사업(인력 지원)’과 ‘상인 교육’에 선정돼 전통시장 전반에 활

력이 더해지고 있다.

청호시장은 전라남도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1억 83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상반기 중 사업을 조기 추진해 방문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특성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3년간 멧돼지 662·고라니 621마리 포획

도서지역 포획틀도 제작 설치

진도군이 야생 멧돼지 등의 민가 출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2명을 선발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농경지 등에 출몰하는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 분묘 훼손을 예방하고, 밀렵과 밀거래, 위법행위 근절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야생동물의 포획을 요청하면 포획 허가를 받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출동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해 전량 폐기 처리한다.

최근들어 도서지역에도 멧돼지의 개체수가 급증해 농작물과 인명피해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 진도군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의 멧돼지 포획에 집중하고, 2000만원을 들여 멧돼지 포획틀을 제작해 1분기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진도군은 지난 3년간 멧돼지 662마리, 고라니 621마리를 포획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재정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반값 관광택시 타고 완도 힐링 여행 하세요

택시 기사가 문화·관광 정보 안내

완도군이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반값 관광 택시’를 운영한다.

‘완도 관광 택시’는 관광객이 관광지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택시 기사와 함께 이동하며 문화·관광 정보 등을 안내한다.

택시는 제도(육지)권의 경우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도서 지역은 청산면에서 이용 가능하다.

관광 택시 운행 기본 요금은 제도(육지)권의 경우 2시간에 5만원, 3시간은 7만원, 5시간은 10만 원 등이다. 실제 관광객은 택시 요금 50%를 완도군이 지원해 2시간에 2만 5000원 등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관광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이용 2일 전까지 완도 관광택시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박현정 완도군 관광실 팀장은 “반값 관광 택시를 통해 이동의 불편함을 줄이고, 매력 있는 완도 관광지를 두루두루 둘러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25년 만에 인구 늘었다…AI·에너지 투자유치 영향

지난해 12월 첫 증가세 전환

해남군이 AI·에너지 중심으로 떠오르며 인구 감소세가 25년 만에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해남군 인구는 전월보다 7명 늘어나는 깜짝 반전세로 돌아섰다. 지난 2013년 이래 매달 100여명씩 감소하던 인구가 지난해 11월 들어 9명 감소한 데 이어 지난 12월 6만 2188명으로 처음 증가했다.

전입을 통한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나 한 달 동안 해남군에 전입한 인구는 356명으로, 전출인구에 비해 64명 증가했다.

인구 증가 지역은 산이면과 화원면으로 각각 24명, 14명이 늘었으며 해남읍과 삼산면, 북평면, 황산면 등도 뒤를 이어 증가했다.

산이면과 화원면은 최근 삼성SDS 국가AI컴퓨팅센터와 LS전선㈜의 해상풍력 전용항만 구축 등 AI·에너지 개발 호재가 거센 지역으로, 이번 인구 증가세는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AI·에너지 투자유치와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화원산단의 해상풍력 기지재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사업들이 첨단기업 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명현관 해남군수 등이 지난 2일 시무실에서 인구10만 에너지자립도시의 비전을 담은 타임캡슐 봉인식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증폭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읍도 주거 시설 신축, 직통 교통망 확충과 마이스터고 추진 등 본격적인 대비에 돌입하면서 전입인구가 늘고 있어, 해남읍 증가세도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삼산면과 북평면 등은 국립기후변화대응센터들

중심으로 한 농업연구단지 조성이 인구 유입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농업연구단지에는 청년 임대농장과 스마트팜, 기업의 R&D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는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영암농업대학 다음달 13일까지 교육생 모집

영암군이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제19기 영암농업대학 교육생을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영암농업대학은 지역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한 장기 전문 교육과정으로 올해 제19기를 맞아 ‘무화과 과정’과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 취득 과정’ 등 2개 과정에서 총 5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교육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 선진지 견학 등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운영된다.

무화과 과정은 재배기술과 병해충 관리, 가공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무화과 주산지인 영암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 취득 과정은 전통주 제조 실습과 자격 취득 지원 교육을 통해 전통주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 수료생들은 지역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무안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78명 모집

무안군이 구직 의욕을 잃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운영을 맡는다.

사업 대상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등으로, 총 78명을 선발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참여 기간에 따라 단기(5주)·중기(15주)·장기(25주)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과정 이수와 취·창업, 연속 등 목표표를 달성할 경우 최대 35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unesco
World Heritage site
Getbol, Korean Tidal Flats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 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면적	한계 (km²)	유산지역 (km²)	완충구역 (km²)
총면적(km²)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km²)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km²)의 약86%, 국가연안습지(2,482.00km²)의 약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로부터 인정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외딴해 갯벌



산과 섬에 둘러싸인 절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조수로



갯벌 위의 수채화



새들의 휴식적인 사취와 일반서식지



갯벌 위에 춤추는 무희, 사취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퇴적층



갯벌로 다른 행성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형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움



개찰별로 다른 행성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먹이활동, 서식굴, 쾨플러 싸움, 염낭개,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콘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철새이동



철새의 먹이활동



서식굴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쾨플러 영역싸움



갯벌의 청소부 염낭개



염생식물의 역할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수업 현장!



VR로 떠나는 생생한 갯벌 탐험



직접 만지고 만드는 생태 교육 체험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성해보는 활동